

창의 ·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와 요구 분석

오정숙 · 강버들* · 박소영 · 임성민 · 박종운* · 원효현* · 김학범
(대구대학교 · **부경대학교)

An Analysis of Teachers' Expectation and Need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Jung-Sook OH · Beodeul KANG* · So-Young PARK · Sung-Min IM · Jong-Un PARK* ·
Hyo-Heon WON* · Hak-Bum KIM
(Daegu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qualitatively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of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winter training and workshop which the Southeast Regional Center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rrang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shown that teachers perceived close correlation between creativity and character and competency necessary for students who will make a living for future society. Secondary, Teachers perceived that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will benefit students in their cognitive, emotive, and affective aspects. Lastly, teachers thought that an administrative assistant and financial help such as securing classroom had to be supported so that they were able to freely conduct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ing materials provided by the Regional Center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Center were helpful in establishing a whole foundation when they started to conduct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Key words :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Field practice, Qualitative analysis

I. 서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거나 앞서가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고, 학습의욕과 지적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가가 정해진 동일한 교과목과 내용으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며, 교과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교육 등 폭넓은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배려와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7, badlle@pknu.ac.kr

* 이 논문은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서(2014)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창의성과 인성은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Park, 2013). 우리나라에서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에 있다. 많은 학자들이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형 인재상에서 벗어나, 오늘날 지식정보 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개념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개념이 바로, 인성이다.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신과 선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가 창의성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개념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결국,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이면서도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춘 바른 인재가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창의·인성교육의 인재상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모두 겸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Kang, 2013).

Moon(2010)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

한편,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을 창의·인

성교육정책의 해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개선, 교원·학생·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평가 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연수의 확대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들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하여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ark, 2011).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의 활성화, 학생·교원·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평가 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지역 교원들의 창의·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과수업에서 창의·인성교육 실천능력을 신장하며, 학교의 창의·인성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 사업 중 동계 교원연수와 동계 워크숍 영역에 제한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교원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II.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운영 실태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소속 교수와 연구진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창의·인성교육 수업에 대한 우수 사례 분석과 공유 등 교사의 창의·인성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현장 실천 위주의 교원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동남권 거점센터는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하고, 교과수업에서 효율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확산을 위해 교사들이 가져야 할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등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을 두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꿈과 끼를 키우는 교수법에 관한 교사용 자료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교사들의 창의·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과수업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실천 능력을 신장하며, 학교 현장의 창의·인성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운영 목적으로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선도하는 교사들 중,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에서 주관한 동계 교사연수와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수업연구회 교사 37명, 동계연수 참여 교사 28명으로, 전체 응답자는 총

65명이었다. 이들 중 10여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55명을 대상으로 기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division		respondents
survey	teacher training participants	28
	workshop participants	27
interview	elementary lesson research association	5
	secondary lesson research association	5
total		65

2. 조사 도구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Table 2>와 같이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Teacher respondents analysis frame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region	category
expectation	defini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rel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ecessity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im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effect	student resul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eacher resul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eed	need for education environment
	need for education data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동남권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교육정책개발실에서 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자율진단표를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교사 연수와 워크숍 후에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창의·인성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통도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기대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에 대하여 창의성과 인성의 정의,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 창의·인성교육의 정의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을 각 하위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성과 인성의 정의

창의성과 인성의 정의에 대한 응답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Defini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creativity	new thinking	31/58
	problem solving ability	14/58
	self-contentment	3/58
	curiosity, observation & imagine	2/58
	self directed ability	2/58
	flexible thinking ability	2/58
	sharing with person	1/58
	cognitive ability	1/58
	motive power of social development	1/58
	value creation	1/58
character	necessary character for community	35/57
	basic character of human	12/57
	specific thinking & attitude of individual	10/57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새로운 생각 또는 기존 생각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발산하고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여기에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된다. 이어서 3명의 교사가 ‘남과 다른 자기다움’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그 밖의 의견들로는 호기심과 관찰력, 상상력, 계획과 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 인지적 특성, 사회발전의 원동력, 가치 창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소수의 의견들로 제시된 호기심, 관찰력, 상상력, 사고능력, 인지력 등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능력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치창출이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문제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다. 즉, 창의성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으며, 교사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다양한 사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즉, 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성품’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눔, 배려, 공감, 존중, 의사소통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성을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소양이나 덕목’으로 이해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유사한 수의 응답으로, 인성을 ‘개인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독특한 사고와 태도’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들도 제시되었다. 인성의 정의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인성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성품이고, 또한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양식과 태도, 행동 특성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업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창의성과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사들의 주된 생각들을 정리하면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것을 조합하거나 고안하는 능력이며, 인성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태도와 성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Relation between creativity and character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 relati on	complementariness relation	39/60
	creativity on the character	16/60
	character on the creativity	1/60
- relati on	no relation	3/60
	negative relation	1/60

* - ; no connection.

창의성과 인성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된 의견은 창의성과 인성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좀 더 살펴보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인성이 기본이며, 그 위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소수 의견으로 창의성이 인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창의성 위에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 제시되었다. 반면, 창의성과 인성이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고, 심지어 창의성과 인성이 반비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응답을 요약하면, 응답자 대부분은 창의성과 인성은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갖으며,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이 균형 있게 길러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Table 5>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Table 5> Necessary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preparation ability for future society	27/60
all-round education	8/60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8/60
change of education system	6/60
control ability oneself life	6/60
strengthen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5/60

창의·인성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인교육과 문제해결력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또한 창의·인성교육이 새로운 교육방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응답,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에 대해 전인교육, 문제해결력 신장,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체계의 변화 때문이라는 응답과 스스로 자기 삶을 가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고찰해 보면 교육은 본질적 속성상 미래를 살아갈 능력을 키워가는 활동이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이 응답 또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준 미래사회 대비 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 내용과 관련이 깊다.

이상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응답 교사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창의·인성교육의 정의

창의·인성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교사들은 <Table 6>과 같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Table 6> Defini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strengthening of sel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power cultivation live with another person	11/58
fostering of creativity thinking & character	9/58
basic education	7/58
education for dream, talent & happiness	7/58
self-life improvement education	6/58
cultivate education people of talent	6/58
education for variety of student	5/58
view education for world	4/58
self-renewal of teaching by rote	3/58

창의·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약 20%의 응답자들이 창의·인성교육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창의성과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는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꿈, 끼, 행복을 살리는 교육’이며,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수의 응답으로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는 응답도 제시되었는데, 인재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응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의견을 정리하면 창의·인성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협업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고유하고 다양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육,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각자 유사하게 인식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창의·인성교육의 효과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측면에서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측면에서 창의·인성교육의 효과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학생측면에서 교사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Effec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or student aspect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aid	cognitive and affectivity	16/49
	affectivity	13/49
	self directed learning	2/49
	cognitive	2/49
	creativity	2/49
	all aspect	12/49
no aid	imperfection of effect	1/49
	education environment	1/49

거의 모든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인지적, 정의적 영역 모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정의적 영역의 효과가 특히 높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미래지향적 인재, 전인 교육, 도전의식 및 사회성 고취, 인성과 질적 만족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즉 창의·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인지적, 정의적, 정서적 측면에 모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미

래지향적 인재, 전인교육, 인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창의·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교사 측면에서 창의·인성교육의 효과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교사측면에서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Effec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or student aspect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aid	effect	12/53
	professionalism	9/53
	efficacy	1/53
	effect, professionalism, & efficacy	17/53
	student understanding	4/53
	aid to this	6/53
	all	1/53
no aid	have no	1/53
	decrease of effect & efficacy	1/53
	do not know	1/53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인성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창의·인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므로 인해 생기는 보람,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교육적 지식과 전달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교사의 자아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특히 창의·인성교육은 교사에게 보람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밖에도 교사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 향상, 사명감, 교사로서의 권위가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함으로써 수업 지도방법 및 지식 전달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의 행동, 생각과 같은 정의적 측면으로 교사의 인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이전의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수업에 대한 지식보다 학생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오히려 학생보다 교사인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이 업무의 가중으로 다가와 교사로서의 보람과 효능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에게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과중한 교사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와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한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요구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육환경과 교육자료 측면에서의 요구에 대하여 교사들의 응답을 각 하위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Need for education environment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improv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2/53
	reduction of subject content	4/53
	reduction of teacher task	4/53
	mind fo teacher	4/53
support	administration·finance support	22/53
	teacher training	5/53
	propose of creativity and character program	12/53

창의·인성교육을 하는데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보면 행·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은 교과교실제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전용교실 설치, 창의·인성교육 연구를 위한 교사 협의 체제와 연구 공간 및 연구비 지

원, 교사의 복지 등을 원하고 있으며, 창의·인성 교육이 잘 되기 위해 관리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행정인턴을 고용하여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해 주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 활용 능력의 향상을 원하고 있다. 여기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교재, 활용 팁뿐만 아니라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교사 자신이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려는 의지보다는 완벽하게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이나 잘 개발되어진 교육과정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 사항으로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과 필요한 내용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창의·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평가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요구에 앞서 교사 자신부터 창의·인성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자유롭게 창의·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및 개선해 주어야 하며, 교실 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부터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구 사항이 제시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교육 자료에 대한 요구

교육 자료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

견을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Need for education data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aid	reconstruction curriculum	4/33
	development of lesson data	6/33
	related activity	2/33
	idea	11/33
	necessity and method	2/33
	for student	2/33
	confidence	3/33
no application		3/33

교사들은 창의·인성 자료가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전체적인 수업의 틀을 구성할 때 아이디어로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창의·인성교육 자료가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수업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 알맞은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창의·인성 자료는 교사들에게 창의·인성 수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며, 교사들은 지도안을 작성하고 학교 밖의 수업에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수업을 계획하고 구상하려는 노력을 통해 교사들은 자아효능감이 생기고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응답으로 보아 창의·인성 자료는 효과 측면 사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을 내재하고 있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분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지역 교원들의 창의·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과수업에서 창의·인성교육 실천능력을 신장하며, 학교의 창의·인성교육의 분

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동계 교원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질적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계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교사들은 창의성과 인성은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고, 창의성과 인성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육,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인데 이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동시성을 띤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고 발표한 교육부의 뜻과 교사의 인식은 동일하였으나, Kim(2011)의 연구에서 교육현장은 창의·인성교육이 참신하거나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교육현장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은 창의·인성교육이 인지적·정의적·정서적 측면에 모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인재, 전인교육, 인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는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과중된 교사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수와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한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이 자유롭게 창의·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교실 확보 등의 재정적인 교육환경 측면의 지원을 해야 하며, 창의·인성 자료는 교사들에게 창의·인성 수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

인 기틀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며, 교사들은 지도안을 작성하고 학교 밖 수업에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행정인턴을 고용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창의·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수업 할 수 있는 수업 내용 변경과 관련한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References

- Kang, Beodeul(2013). Present and future of STEAM and Fusion person education. 2013 Spring Conference for the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 Kang, Beodeul., Park, Jong-un(2014). A Study on Student', Parents', and Teachers' Change of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rough Oper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6(2), 257~269.
- Kim, Jong-Kwon(2011). A Study by Re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and Analysis of Textbooks for Creativity and Humanity and Apply Case of Lesson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100 Education Curriculum Excellent School Plan. Curriculum Department Policy Data.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s workshop for school administrators(2013. 10. 18).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09). The Manual of 2009 Revised Curricula.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10). Basic plan for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2010. 1).
- Moon, Yong-Lin(2010). Now is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Science & Creativity, 2010. February. 6~9.
- Park, Choon-Sung.(2010). The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evolved in school,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0(2) 61~72.
- Park, Choon-Sung.(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 Culture Research, 17(1), 79~97.
- Park, So - Young(2013). Creativity·Character and STEAM education. 2013 Spring Conference for the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 Report on Operation i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Southeast part Main Center (2013),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122~132.
-
- 논문접수일 : 2012년 09월 1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06일